

[제주잠녀]98.<2부>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69)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힘든 조기작업 왜 하겠어, 물건만 있으면 바다에 갔지..."

등록 : 2007년 12월 23일 (일) 15:19:14
최종수정 : 2007년 12월 23일 (일) 15:19:14

고미 기자 ✉ popmee@jemin.com



겨울바다쯤은 잠녀들에게 아무런 제약이 못 된다. 바다로 헤엄쳐가서 물에 한번 들었다가 숨비소리 한번 내지르고 다시 바다속으로... 샅터에서의 작업 모습

바다가 그랬다. 이제 조금 사람들의 속내를 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 차를 멈추고 눈앞에 펼쳐진 풍광에 흠뻑 빠져 볼만한 바다지만 그 품에 안기는 것에는 수십 번 고민이 따른다. 그냥 서 있어도 못깃으로 파고드는 겨울 바다 바람 탓만은 아니다. 오랜만에 바다를 만나는 길, 바다 발을 일구는 손은 겨우 열을 채웠다.

△물건이 있으면 바다에 갔지

애월읍 고내리 어촌계를 찾은 날은 겨울이라고 해도 마침 날이 좋아 잠녀들의 물질 준비가 한창이었다.

'바다에 나가는 길'이라는 부산함과 달리 정작 작업에 나선 잠녀 수는 5명이 전부다. 그 중 1명은 '물에 간다'는 전화를 받고 제주시에서의 불일을 접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다.

고내리 어촌계원 68명 중 잠녀 수는 51명. 현직 어촌계장인 이문자씨(67)도 직접 물질을 하고 있다. 물에 드는 상시 잠녀 수는 30명이지만 최근은 5명이나 채우면 다행일 정도로 그 수가 줄었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었을까. 이제 70에 가까운 노령의 잠녀들까지 한림까지 조기 작업을 하러갔다고 했다.

"물건이 있으면 바다에 가지 누가 몸 힘들게 작업을 하러 가겠냐"는 푸념 섞인 소리가 뒤따른다.

요즘 이곳 잠녀들은 1시간에 8000원을 받고 15시간 넘게 조기 작업을 한다. 예전 물질 작업이 한창일 때는 '뇌선'이라는 두통약을 먹었다면 지금은 오래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는 탓에 신경통약을 달고 산다고 했다.

고순옥 잠녀부회장은 "고내 바다는 어장은 넓지만 물건이 통 없다"는 짧은 말로 백화현상 등으로 힘겨워진 바다 사정을 설명했다.

4~5년전만 해도 한번 작업에 소라 40~50kg은 너끈히 거둬들였지만 바로 전날 물에 들어서 건진 소라는 300g을 채울 정도였다.

고 잠녀부회장은 "3년전부터 '소라가뭍'이 왔다"며 "해삼이든 소라든 거의 나지 않다보니 공동작업까지 포기하고 조기 작업을 하러 나간다"고 말했다.

△사람에 치이는 바다

40대 잠녀가 1명 있기는 하지만 50대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60대를 넘어섰다. 노령화로 힘든 물질 작업이 어려워진데다 물건까지 나지 않으니 물에 들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듯 보였다.

물질 작업이 덜하면 그만 뿌려둔 종패며 제법 잘 자랐을 것 같았지만 사정은 그렇지 못했다.



좋은 풍광을 가지고 있다보니 하나둘 펜션이 들어서고 그만큼 생활하수도 늘었다. 그탓에 제법 물건이 좋았던 남도리에서는 요즘 작업을 거의 하지 않는다. 접근하기 쉬운 바다에는 스킨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바다를 헤집는 사람도 많기 마련.

지난해 전복 8kg 상당(45개)을 몰래 딛는 스쿠버를 잠녀들이 붙잡아 고발을 했다. 전복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큰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늘 불만이다.

"조사한다고 전복 45개를 가져갔는데 전부 냉동실에 넣어두는 바람에 하나도 못쓰게 됐다"며 "하나만 자연산이고 나머지는 종패로 밝혀지는 등 종패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잠녀들 사이에서는 “먹이도 없는데 종패만 뿌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종패를 지키는 일에 손이 더 가는 탓이다. 툇 등의 수확량도 갈수록 줄어들고 바다가 아닌 다른 돈벌이를 찾아야 하는 판에 바다 번을 서는 일은 그리 내키는 일은 아니다.

서바다(지발)와 동바다(오지알)를 나눠서 작업을 하는 잠녀들에게 바다는 그냥 버릴 수 없는 미련이자 아직 남은 희망이다.

3일 작업에 100만원 넘는 돈을 손에 쥐었던 그 옛날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해 하수처리장 사업 완료에 따른 기대 효과도 적잖다.

‘휘호이…, 휘호의…, 효후우…, 효후우…’ 뒤를 쫓아 찾아간 바다에는 어김없이 숨비소리가 쏟아진다.

‘바로 달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제주시 매월읍 신엄리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